

담양대나무축제, 다채로운 콘텐츠로 ‘머무는 축제’ 준비 완료

전 세대가 즐기는 체험과 공연, 야간 죽녹원까지... 5월 황금연휴 기대감 높여

오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죽녹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24회 ‘담양대나무축제’가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을 다채로운 콘텐츠를 갖추고, 체류형 축제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다.

‘담양 조록에 물들다-대나무의 향연 with Daenamoo’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황금연휴 기간과 맞물려 전 세대를 아우르는 공연과 체험, 야간 개장까지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개막일(5월 2일) 오전에는 꽃탑광장에서 청소년 그림대회, 시니어 패션쇼가 진행되고 16시 30분, 관광정보센터에서 전남도립대 주차장 주무대까지 마칭밴드와 함께하는 개막퍼레이드로 축제의 막을 연다.

다. 이어 17시 개막식에 이어 가수 이찬원과 지창민 등 공연이 펼쳐지며, 20시 50분 드론 라이트쇼가 축제의 화려한 시작을 장식한다.

축제 이튿날인 3일(토)에는 14시 제4회 군민의 날 행사를 시작으로 15시 초대 가수 김태연의 축하공연과 지역예술인의 공연에 이어 19시부터 김경호 밴드, 황운성 등 탄탄한 라인업을 자랑하는 대나무 콘서트가 축제의 열기를 더한다

4일(일)에는 대나무 축제 성료 및 관광객의 안녕을 기원하는 죽신제와 담양의 특산품인 죽순을 활용한 죽순요리 경연대회가 열리며, 크랙시, 더블루아이스 등 청춘을 위한 공연도 진행된다.

어린이날인(5일)은 아이들을 위한 하루

다. 어린이 뮤지컬 베베핀 공연(오전 10시, 오후 13시), 14시 담빛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 마술 공연이 펼쳐지고 추성경기장에서는 대나무드론 만들기 체험(10시~12시)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저녁에는 황가람, 화영 등 가수들의 무대가 이어진다.

6일(화) 축제 마지막 날은 대나무 양상블 음악회, 지역예술인 공연으로 마무리된다.

담양/이종욱 기자

순천시,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 원 이자 지원

3천만원 한도... 전남신보 보증 통해 8개 은행서 대출 가능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오는 5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 시, 연 5% 이자를 2년간 시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업체당 최대 3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금융지원 정책이다.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연 5% 이율로 대출할 경우, 연간 약 150만 원, 2년간 총 300만 원의 이자를 순천시가 대신 부담해 주는 셈이다.

지원 대상은 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운수업체,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이 해당된다.

5월 2일 오전 9시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하며, 직접 방문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신청 자격 및 절차는 순천시 누리집(www.suncheon.go.kr)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061-752-8590~1)로 문의하면 된다.

대출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거쳐 농협, 국민, 광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보증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금융지원은 단순한 융자 혜택을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돕는 실질적인 정책”이라며, “높은 수요에 대비해 신속한 접수와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분기에는 접수 첫날 새벽부터 소상공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당일 조기 마감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분기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접수 일정에 맞춰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돌 필요가 있다. 순천/정성인 기자

구례군은 오는 2025년 5월 12일(월)부터 공중보건의사 진료로 인해 중단되었던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례군 공중보건의사 수가 2021년 23명에서 2025년 15명으로 약 35% 감소하면서 진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구례군은 공공의료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직접 채용하여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이번 진료 재개는 지역 내 의료 접근성이 제한된 0세부터 17세까지의 소아청소년과 그 부모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향후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특히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 및 발달 상담 등 다양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가

구례군, 보건의료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 재개 소아청소년 위한 의료 접근성 향상으로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를 통해 청년층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고, 향후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특히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성장 및 발달 상담 등 다양한 소아청소년 보건의료서비스를 보다 가

까운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가 발로 뛰는 노력 끝에 30여 년 경력의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진도군, 찾아가는 레드서클존 운영

진도군 보건소는 최근 진도우체국 직원 약 30명을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레드서클존’을 운영했다.

심뇌혈관질환은 예방·관리가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 만성질환과 스트레스에 대한 관리를 통해 스스로 예방·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한다.

진도군 보건소는 바쁜 직장생활로 병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을 위해 유관기관들과 연계해 진도군 보건소가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서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1:1 맞춤 건강관리를 진행하는 등 ‘찾아가는 레드서클존’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진도/오재명 기자



영암군, ‘공무원은 처음입니다만’ 프로그램 마쳐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16~24일 신규 공직자 26명이 참여하는 공직 적응 향상 프로그램 ‘영암군 공무원은 처음입니다만’을 진행했다.

2023년부터 이어진 이 프로그램은, 20~30대 신규 공직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공직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지난해부터 임용된 공직자들이 3개 조로 나눠 1일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기주도 공직생활 설계·성장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신규 공직자들은 ▶아이스브레이킹 ‘무화과빵 만들기 체험’ ▶고충은 말하고 공감은 높이고 ▶우리들의 마음정원 ‘나의 강점은 어떻게 찾나요?’ 등에 참여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나주시 가족아동과-진도군 의신면, 고향사랑 상호기부

나주시 가족아동과는 지난 23일 진도군 의신면과 함께 지역 간 상생발전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 상호교차 기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호기부는 나주시 가족아동과와 진도군 의신면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모아 고향사랑기부금 130만 원씩을 상호기부해 주민 복지 향상과 삶의 질 제고에 힘을 보탰다.

양 기관의 직원들은 단순한 행정 교류를 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진심을 담은 나눔을 실천했다. 각 지역에 기부된 금액은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교육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주민 복지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나주/이명열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